

일본 메구로가조엔 건물의 실내설계기법에 관한 연구

- 전통성의 현대적 표현사례 -

A Study on the Interior Design Method of Mekuro-Kazoen BLDG. in Japan

김은중* / Kim, Eun-Joong

Abstract

Mekuro-Kazoen BLDG. is complex of office, hotel, and banquet hall, built in 1991, Tokyo, Japan. This building suggest us various issues about the representation of traditionality in current architecture. We can find the possibility of representation of traditionality in large complex, in past, rarely applicated. Even in Japan, such trial in official building as New Office Building of Tokyo in Sinzuku shows a application only in the elevation plan. In Mekuro-Kazoen BLDG. the application of traditionality are found not only in external appearance, but also in interior design. And the modernity and traditionality in this building are represented simultaneously not deteriorating each other.

The issues of representation of traditionality in interior design should be succeed not only in now but also in future. The method of application need to be studied and improved. The fields of application also should be extended such as large complex buildings and future-oriented buildings.

키워드 : 전통성, 현대화, 첨단복합건물, 의장기법

1. 서론

최근 실내디자인에 있어서의 전통성에 대한 현대적 적용이 업계 및 학계의 주요현안으로 부상되고 있다. 한국에서는 주로 문화시설 및 주거시설을 중심으로 현대건축에서의 전통성 표현이 구체화되어 왔으나 그간의 시도들이 주로 건축외관에서의 표현에 그쳤으며 실내 공간에서의 적용은 그 의도성을 찾아보기 힘든 것이 전통성 표현의 한계이며 실체였다고 볼 수 있겠다. 또 하나의 한계를 지적한다면 주로 중소규모의 건축물에 적용됨으로써 대형 건축물에서의 적용에 가능성을 모색하지 못하였다는 것, 그리고 업무나 상업건물에서는 거의 그 적용사례를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것이다.

일본 동경 메구로의 가조엔빌딩(黒雅絨園)은 업무, 숙박, 그리고 연회장등이 복합된 대규모 복합시설로서 현대와 전통이 접목된 건축물로서 대표적인 사례로 손꼽히고 있다. 특히 본 건물은 건축외관에 서뿐만 아니라 건물실내공간에 전통적인 의장기법을 과감하게 도입하여 실내공간에서의 전통성표현의 가능성에 커다란 장(場)을 제공한 사례라 평가해 볼만한 건축물이다.

본 연구에서는 메구로가조엔의 실내공간에 있어서 전통성을 구현하는 기법에 초점을 두고 또한 실내공간의 의장기법과 외관에서의 전통성표현이 어떠한 방식으로 조화를 이루고 있는지에 대해 분석하며, 이러한 기법을 통한 착안사항들에 대하여 논하여 보고자 한다.

메구로가조엔건물에 대한 조사는 본인이 97년 7월 현지답사와 설계사측의 인터뷰 및 자료입수를 통해 이루어졌다.

2. 메구로가조엔건물의 개략

메구로가조엔은 동경의 메구로구 下H黒의 부지 약 29,801m²에 기존사업인 호텔 및 연회시설뿐만 아니라 업무용 인텔리전트빌딩과 미술관등을 병행하여 복합시설로 전면 개축하여 1991년 11월에 완성하였다. 이 시설의 건축주는 합자회사 雅絨園이며 설계 및 감리는 니켄세계이(日建設計), 그리고 시공은 가지마건설(鹿島建設)이 담당하였다.

이 건물은 고도의 어메니티(amenity)시설과 복합기능이 돋보이는 작품으로서 구관(舊館)의 메구로가조엔은 1931년 요정 및 결혼식장으로서 개업하였는데 유명한 예술가로부터의 미술공예품을 수집하여

* 정회원, 건양대학교 기계건축토목공학부 전임강사

무척 고상한 실내장식을 통해 동경의 명소로서 알려진 곳이다. 전면 개축의 동기는 내적으로는 60년 가까이 경과한 건물의 노후화의 문제이며 외부적으로는 동경의 H.黒川の 개수공사등 주변의 재개발계획등이 겹쳐졌기 때문이다. 특히 후자의 경우 JR메구로역 부근에 동경도영지하철 6호선과 영단지하철의 상호노선이 95년 완성을 목전에 두고있어 이것을 중심으로 도시정비계획이 착수되는 상황이라 이 역으로부터 300미터정도밖에 안떨어지는 이 시설에 업무용시설의 수요의 가능성이 생겨난 배경도 있다. 또한 주변의 샤프로 맥주공장부지의 재개발계획등 몇 개의 복합빌딩건설계획등이 예정되어 있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입지의 변화가 호텔, 연회장시설의 전면개축뿐만 아니라 업무용건물의 복합사업개발로 이어지게 된 것이다.

전체의 배치는 사무소동인 아르코타워는 H.黒川을 따라 남북으로 길게, 동서는 얇은 형으로 진입부분에 위치하며 인접한 메구로가조엔은 일본정원으로 둘러싸여 배치되어 있다. 주진입부분에 도로에 면하여 광장을 배치하였는데 이 광장은 사무소동에의 인입력을 확보하는 역할을 담당함과 동시에 인근주택으로 하여금 고층시설의 압박감을 해소해주기 위한 계획이라고 한다.

3. 실내공간의 전통적 의장기법

메구로가조엔건물에서 보여지는 전통성의 현대적 적용의 구체적인 사례는 주로 4개의 부분으로 나누어 집중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첫번째는 아르코타워와 가조엔 건물의 연결통로(1층), 두번째는 가조엔건물의 1층 로비, 세번째는 가조엔 건물의 측면 아트리움 내부의 실내정원, 다음으로 네번째는 가조엔의 엘리베이터홀 부분으로서 주로 가조엔 건물에 상당부분 적용된 것으로 보인다.

3.1. 아르코타워와 가조엔의 연결통로

아르코타워에서 가조엔건물로의 진입부에는 상부를 커다란 기의 지붕으로 캔틸레버를 형성하였으며 그 양측으로 내부 수경처리를 하여 일본식난간으로 둘러 처리하였다. 특히 우측의 수경처리부분은 외부에 형성된 일본정원의 대형연못과 연결되어 전면창벽(all-glassed wall)을 사이로 내외부 공간적이 유기적으로 만나게 되는 극적인 연출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진입복도의 천장의 곡면을 일본의 전통적 출입문의 처마선을 현대적인 선으로 처리하였다. 진입부 캔틸레버의 상부에는 간접조명으로 기와골이 선명하게 부각되도록 하였으며 내부복도의 상부천장에는 루마사이트를 이용한 간접조명으로 하되 루마사이트부분에 각 그리드(grid)마다 민화나 화조도등의 문양을 아로새긴 전통적인 실내의장을 표현하였다. 복도의 측면은 한면은 외부 일본정원과 면하여 전면창으로 처리하였으며 한쪽 측면은 벽면벽화에 일본민화의 목조판(木彫板), 칠예벽화(漆藝壁畫) 또는 섬세한 미술품들로 채워 현대건축에 재이용하는 수법을 이용하였다. 그 위에 부삽지붕을 올려 긴 띠를 형성하여 복도전체를

두르고 있는데 이 띠는 가조엔의 아트리움 내부까지 연장되어 있다.



<그림 1> 아르코타워와 가조엔 연결통로

3.2. 가조엔 건물의 1층 로비

가조엔 건물의 1층로비에는 상부천장의장에서 가장 극적으로 전통성을 표현해주고 있다. 상부천장은 양측면이 다소 낮고 중앙천장을 한 단 높여 단 차이부분에 간접조명으로 상부천장을 반사하여 빛이 실내를 조명하도록 되어 있으며 중앙 천장은 격자소란에 일본민화와 화조도등을 다양하게 원형화폭에 담아 처리하여 로비전체에 걸쳐 장식하였다.

한 단 낮은 천장부위에는 좌측의 건물 내부측에는 다운라이트로 조명을 보강하였으며 창측 천장부위에는 별도의 조명처리를 하지 않고 창측 각 기둥의 상부에 벽부등을 설치하여 좌우의 조명이 다르게 처리하면서도 조화를 이루도록 계획이 되어 있다. 전체 홀의 기둥과 벽체부위는 걸레받이를 다소 높게 설치하며 벽부등 높이에 모울딩을 설치하였는데 걸레받이와 모울딩의 색채는 동일하게 하며 벽체와 천장의 색조는 베이지색계통으로 그리고 걸레받이와 모울딩은 옅은 고동색계열로하여 전반적으로 난색계열의 의장으로 차분하고 아늑한 실내환경을 연출해 주고 있다. 바닥은 상부의 민화나 화조도와 어울리도록 화조문양의 케펫으로 마감하되 벽이나 천장과 비슷한 색조로 전체적으로 통일감있는 분위기를 연출해주고 있다. 또한 좌측 건물 내부쪽의 벽 모울딩 위로 중간 통로부위의 상부에 아치를 틀었는데 단순한 반원형 아치가 아니라 일본의 출입문등의 상부에서 보여지는 아치형태를 현대적인 감각으로 처리하여 설치해두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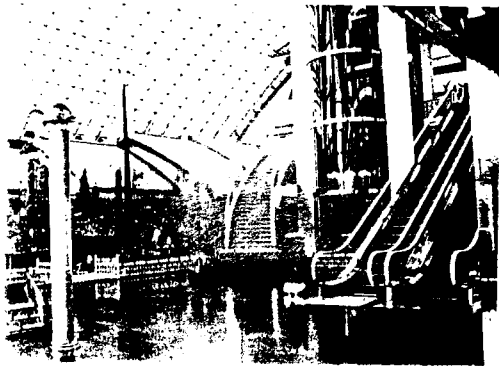


<그림 2> 가조엔 1층로비

3.3. 가조엔측면 아트리움

가조엔 실내공간에서 가장 극적인 표현으로 여겨지는 곳이 바로 가조엔 측면 아트리움 내부의 전통가옥과 실내의장요소를 들 수 있겠다. 가조엔의 아트리움은 실내정원형태로 구성되었는데 실내에 연회실이 3단으로 층을 이루며 지붕을 형성하였는데 아래 두단은 초가로, 가장 위의 단은 초가로 지붕전면을 덮되 그 위로 일부를 기와지붕으로 덮여 특이한 지붕의 변형(innovation)을 보여주고 있다. 초가지붕의 상부에는 일종의 차양구조로 캔틸레버를 형성하여 깊은 처마를 만들어주고 있다. 구조는 전통목조로하여 창호 및 각종의장을 전통의 모티브를 그대로 이용하였다. 초가 연회실 전면에 일본식 정원을 축소하여 정원수와 연못, 담장의장에 까지 전혀 현대적 감각이 없는 전통적 의장을 그대로 반영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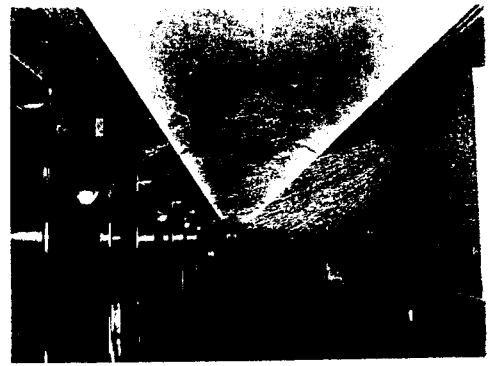
아트리움부에 1,2,3층 에스컬레이터가 형성되며 에스컬레이터 교차부를 중심으로 아트리움으로 돌출하여 전망용 복도가 돌출되어 있는데 층층이 기와지붕으로 부설지붕을 두어 캔틸레버를 형성하고 있다. 처마부위는 서까래형상의 모울딩을 현대적인 감각으로 처리하였으며 복도의 난간도 스틸부재를 전통적 난간의장으로 제작 설치하였다. 아트리움의 측면벽에는 그 배면에 형성되는 연회실문의 벽을 일부 노출시켜 그 상부를 층층이 부설지붕으로 띠를 둘렀으며 그 돌출 벽면위에는 일본의 전통적 실내의장에서 자주 나타나는 이른바 부채를 펼친 문양들로 치장하였다.



<그림 3> 가조엔 측면 아트리움 내부

3.4. 엘리베이터홀 부분

엘리베이터홀 부분은 바닥의 자주색 카펫위에 짙은 갈색으로 전통부채살의 문양을 도입하여 홀 전체바닥을 마감하였다. 천장은 양 측면은 일부 평천정으로 다운라이트를 설치하였으며 중앙에는 두 개의 호형 아치를 겹쳐 길게 보울트(vault)를 구성하여 처리하였는데 그 형태가 마치 부채살을 펼친 형상을 나타내고 있어 바닥의 평면적인 부채살과 어울려 극적인 대비를 보여주고 있다. 두 개의 호형 아치와 양측의 평천장사이에는 간접조명으로 호형아치를 반사하여 홀 안으로 조명이 이루어지게하였으며 엘리베이터 부분의 벽에는 벽부등으로 처리하여 조명을 보완하며 은은한 분위기를 연출하여주고 있다.



<그림 4> 가조엔의 엘리베이터홀 부분

4. 건축 및 외부공간 의장과의 조화

메구로가조엔건물에 있어서 실내의장은 건축의장과의 긴밀한 관계성안에서 계획되어 디자인 초기부터 건축의장과 실내의장계획이 함께 진행 되었다. 메구로가조엔의 건축의장은 아르코타워의 경우 건물외관이 원호형의 현대적인 기하학의 모티브를 이용하였으며 가조엔 건물은 객실부분의 8층까지는 직사각형의 탑형으로 매끄러운 입면을 보여주며 측면의 거대한 아트리움등을 통해 철저하게 현대적인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다. 두 건물 모두 커튼월(curtain-wall)로 전면을 처리하였으나 동경도청사와 같이 커튼월의 의장자체는 전통적인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으며 수평의 띠형태의 중첩의 형태로서 창호와 벽체로 단순한 의장으로 계획하였다. 또한 아르코타워의 측면의 캔틸레버데크(cantilever deck)도 알루미늄 및 스틸판넬로 현대적 의장과 재료적 선택으로 계획되었다. 전통의 적용은 지붕형태와 담장의 표현으로서 나타내는데 메인엔트런스동과 가조엔의 옥탑층이 거대한 맞배지붕으로 그리고 메인엔트런스동 좌측면에 있는 미술관 제일 전시실은 팔각지붕으로 계획되었다. 또한 아르코타워와 가조엔 건물의 동쪽입면부와 일층부분에 부설지붕을 띠모양으로 둘러 일층의 레스토랑 및 로비등 비영업 또는 비업무용 공용부분에 리렉스(relex)한 입면을 제공하고 있으며 가조엔빌딩과 아르코타워가 일체감있게 연결되도록 유도하였다. 특히 이부분은 전면부에 일본식 정원이 계획되어 있어 내부공간에서의 조망뿐만 아니라 외부공간에서의 전통적인 이미지가 조화롭게 표현되고 있다.

건물전면 광장의 지하주차장 입구와 좌측 미술관 제일전시실에 동선분리용의 가벽이 설치되어 있는데 이 가벽은 전통담장으로 표현하여 슬로프(slope)를 따라 벽이 단을지어 따라 내려오도록 계획하였다. 그러나 구조자체는 철근콘크리트구조로 하여 현대적 구조시스템을 사용하였으며 처마 부위에는 공포를 두지않고 메인 엔트런스동만 전후면 처마에 서까래형상의 모울딩(moulding)의장을 두되 슬로프는 두지 않았으며 수평으로 벽체와 교차되도록 하였다.

기타 다른건물에서의 서까래 처리는 매끈하게 수평으로 처리하였으며 일정 간격으로 아주 약한 음각 모울딩을 주었다. 특히 메인엔트런스동의 전후면부 벽체 입면은 장대석바튼층쌓기형식으로 하였으며 지붕의 용마루 양끝의 장식물도 전통적인 지붕장식물의 형상을

두어 이 건물을 통해 건축의장적으로 가장 전통적인 형태를 구사하고 있다.

다음으로 메구로가조엔의 외부공간에서 가장 극적인 공간이라 할 수 있는 곳은 아무래도 메인엔트런스동 후면부터 시작되는 일본식 정원의 계획이 될 것이다. 엔트런스동 후문을 들어서면 아코코타워의 남측면을 거쳐 가조엔건물로 이어지는 부설지붕 아래로 인공연못이 길게 이어진다. 그리고 가조엔 건물에 이르기까지 광장정원으로 서 잔디와 유도석으로, 그리고 배후면에는 관목과 교목을 적절히 섞어 전체적으로 담백하게 계획되었다. 광장정원을 지나 가조엔건물 측면으로 접어들면서 전망이 갑자기 극적인 변화를 가져온다. 가조엔 본체와 아트리움이 직각으로 교차되면서 생긴 넓은 공간을 수경 및 조경적 처리를 통해 일본정원의 단아한 풍경을 조성하였다. 북쪽 단애에 높고 낮은 폭포를 인공적으로 조성하여 정적인 공간에 활기를 찾게 하였으며 높은 폭포의 단애안에 조망공간을 두어 단애안에서 폭포의 추락을 감상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연못에 화강석으로 데크(deck)를 설치하여 그 데크의 중앙으로부터 연못안으로 목조 다리를 연장하여 설치하여 물안으로 들어가 수경을 감상할 수 있도록 처리하였다.

광장정원의 담백한 공간으로부터 극적인 조망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은 아코코타워와 가조엔으로의 전이과정에서 일본정원으로의 이동 과정에 잘록한 통로와 교목을 통해 의도적으로 시야를 폐쇄한 것이 변화감을 극대화시킨 것으로 사료된다.

5. 전통성표현의 기법과 특성

가조엔건물에서의 전통성의 접근방식은 그 설계기법자체의 의의도 중요하겠지만 우선적으로 설정되어야 할 이슈는 그동안 전통성의 현대적 표현의 대상이 주로 박물관, 미술관, 청사등의 문화 및 집회 공간 또는 주거시설에 머물러 있던 상황에서 첨단복합빌딩이라는 주제에 적용되었다는 사실이다. 물론 당계겐초의 동경도청사나 히로시하라의 야마또 인터내셔널등의 대형 오피스 건물에서 그 전통성의 단면을 볼 수가 있지만 주로 외형의 은유적 표현에 국한되는 정도였다. 메구로 가조엔은 이러한 은유적 표현을 통한 관찰자의 관찰자의 외부에서의 인식에서 그치는 전통적 도입이 아니라 대형 복합건물에서 전통적인 요소를 건축 내외부에 건축언어로서보다 구체적으로 적용한 것이다. 즉 건물의 메스에서 현대적 건축언어와 전통적 건축언어를 극적으로 대립시켜 현대적 미학과 전통적 미학이 관찰자로 하여금 동시에 인식되어지도록 은유로 인해 야기되는 인식의 혼돈을 배제시키고 직설적인 표현방식을 채택하였다.

가조엔과 유사한 기법으로 한국의 신라호텔(장충동)의 경우를 들 수 있는데 여기서는 본관 저층부 연회동의 상부를 전통양식의기외를 입혔으며 측면 연회동 별동을 순수한 전통한옥양식으로 계획한 것을 들 수 있겠다. 그러나 이 건물에서의 표현의 한계도 외연적인 도입

에 그치며 내부공간 또는 외부공간에서의 전통성 수용의 기법이 전혀 수용되지 않은 점등이 비교된다.

메구로 가조엔의 전통성을 더욱 풍부하게하는 요소는 아무래도 의장재료를 통해 표현된 다양한 전통성의 노출이라고 할 수 있겠다. 아트리움 및 과정적 공간상에 구현된 실내의장들은 일본의 전통 주거에서 볼 수 있는 의장적 요소를 과감하게 도입하여 현대적 재료와 공간속에서도 전통적인 의장이 별다른 거부감 없이 수용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준 사례라고 할 수 있겠다. 특히 상부천장의 루마 사이트 간접조명에 시도된 천장화의 도입은 현대적 재료와 전통적 장식방식이 잘 조화된 대표적인 예로 볼 수 있겠다. 아트리움의 측면 돌출벽에 세겨진 부채살문양도 전통주거의 상부인방에 장식되는 기법을 측면벽의 콘크리트 위 수성페인트의 마감에 현대적인 회화적 처리로 여과시킨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실내정원에서의 연회실의 상부 지붕처리는 단순한 전통언어의 차용을 떠나 지붕구조를 추가와 기와의 중첩사용을 통해 회화적인 기법이 특히 돋보인다고 보겠다.

6. 결론

이상 일본의 메구로가조엔건물을 통해 현대건축에서의 실내디자인 상의 적용사례를 조사한 바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전통성의 표현적용을 그동안의 범주에서 벗어나 과감히 첨단 복합시설에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국내에서도 그 간의 주거, 문화시설에 국한된 적용영역을 비례형 첨단 시설에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 메구로가조엔의 전통수용 기법은 직설적인 표현기법으로서 현대적 미학과 전통적인 미학을 보색대비 형태로 표현하였으나 전체적으로 조화성이 돋보이고 은유로 인한 인식의 혼돈을 피해 솔직한 표현으로 그 의미를 전달하고 있다.

셋째, 현대적 재료와 회화기법의 도입으로 현대의 건축재료로도 전통적인 주제를 흡입력있게 여과해내며 그 모티브를 충분히 전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었으며 회화적인 기법등을 통해 미학적 가치를 부여한 점등이 좋은 표현기법으로 사료된다.

참고문헌

1. Broadbent, Geoffrey. Sign, Symbols and Architecture. NY, John Willy & Sons, 1980
2. Bonta, Juan Pablo. Architecture and its Interpretation, NY. Rizzoli International Publication, 1979
3. 스즈끼 히로유키, 현대일본의 건축, 윤광진 역, 1984
4. 윤광진, 일본현대건축의 양식분류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1986
5. 김기웅, 한국건축에 있어서 전통성의 현대적 표현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1984
6. 정덕훈, 한국적 이미지를 나타내는 건축디자인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1986
7. 이영준, 한국건축 전통성의 현대적 계승과 수용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1991.
8. 김중헌, 한국현대건축의 전통성표현에 관한 연구, 1986.12